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윤 김중준 기자 | 승인 2025.09.25 15:51

국민이 찾아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구현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가 25일 미룡저수지(은파호수공원)와 옥구저수지·신흥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직원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방치·누적된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와 플로깅(쓰레기담아 달리기) 홍보활동까지 쾌적한 농촌과 호숫길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쓰담쓰담 캠페인은 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수지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2023년부터 공사·시민·지자체·협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사 대표 ESG 사회공헌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1월 16일까지 지역별 공사 관리 대표저수지 18개소를 선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숫길 주변 쓰레기를 담아 걷기 후 사진을 워크온 앱에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캠페인을 진행한 은파호수공원은 매년 벚꽃으로 유명한 도내 대표적인 도심 저수지 공원이며, 옥구저수지는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상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로 두 곳 모두 군산지사에서 관리한다.

서기수 군산지사는 "농업용수 확보·공급의 역할과 시민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철저한 시설·수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시민휴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준 기자